

소프트 비엘 만화 장르의 재미와 의미*

한상정**

I. 들어가며

남성 주인공 사이의 사랑(Boy's Love : BL, 이하 비엘로 지칭)을 다루는 비엘 장르 중에서도 '소프트 비엘(BL)'은 직접적인 섹스 장면, 이른바 '씬(scene)'이라고 일컫는 장면의 묘사가 없는 작품을 지칭한다. 대비되는 '하드 비엘'은 사용자마다 의미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연구에선 작위적으로 소프트 비엘과 달리 씬의 묘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을 지시한다. 만화책보다 웹툰이 주가 되는 현재, 비엘은 북툰과 리디북스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상업적 성공을 견인하는, 주로 여성이 창작하고 여성이 향유하는 장르로 알려져 있다. 음지에서 유통되던 비엘이 양자²⁾로 나와서인지, 2018년에는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22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1) 안예숙 (2008. 11.). 보이즈러브는 부끄러운 장르가 아니다 [인터뷰]. 뷰티풀 라이프 vol 4-1 별책부록 그루. 절대교감. 185-189. 순정만화도 그렇듯이, 실제 독자층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비엘을 창작하지도 말고 읽지도 말자는 탈-비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반대하며 비엘을 옹호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미조구치 아키코의 2018년에 번역 출간된 저서를 인용하는데, 이 연구자는 2000년대 이전 작품의 대다수가 여성을 위한 ‘판타지 포르노’³⁾적 성격이 있었다면, 이후부터는 진화하는 작품이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단순화하면, 1990년대 비엘 작품 대부분은 여성 인물의 비중이 없었고, 남성이 다른 남성을 사랑하면서도 자신은 게이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주인공들 사이의 공수(攻守) 구도가 이성애중심주의의 사회적 규범을 그대로 활용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진화형 비엘이란 이전의 ‘여성혐오, 게이혐오, 이성애 규범을 극복하려는 힌트를 주는 작품’⁴⁾을 뜻한다. 미조구치의 저서는 오늘날의 비엘은 이전과는 달리 정치적 올바름의 요구에 대해 비판받을 여지가 적어진다는 논거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비엘 작품의 생산과 유통, 향유 상황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최소한 만화방이나 도서대여점을 통해 출판유통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보면,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 번역 출판된 일본 작품들은 거의 소프트 비엘⁵⁾일 뿐 아니라, 2000년대 초까지 한국 작가의 작품들도 마찬가지였다. 달리 말하면 포르노라 할 만한 씬의 직접적인 묘사가 있는 작품들은 찾기 힘들다는 의미이다. 이는 창작자나 수입업체의 의도라기보다는 당시의 사회적 환경의 영향이 큰 것으로 봐야 한다. 당시 1997년 청소년보호법의 시행이라는

이뤄진 적이 없어서 다른 성이 얼마나 비엘을 향유하는지 알 수 없다. 비엘 전문 브랜드 루비 코믹스를 출간하는 사장도 ‘최초의 야오남(비엘을 조금 더 비하한 의미의 야오이를 즐기는 남성)’이란 점을 보면 연구가 이뤄져야 할 영역이기도 하다.

- 2) 이유진 (2019. 5. 17.). 은밀하게 취향을 즐길 수 있는 모바일 전자책 기술의 발전에 따라 2015년 계 양지화한 ‘비엘 산업’. 한겨레신문, 출처: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894266.html>.
- 3) ‘판타지 포르노’라는 단어는 쿠리하라 치요 (1998, 198-199)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재인용: 溝口 彰子 (2018). BL進化論. 김효진 번역 (2018, 57). BL 진화론. 서울: 길찾기.
- 4) 미조구치 아키코 앞의 책.
- 5) 1998년 일본대중문화가 개방된 이후, 학산문화사에서 2001년 아마다 유기의 19금이 붙은 『냉장고 속은 비었다』가 가장 빠르고, 2002년 토조 아사미의 19금 『X-Ka』가 출간되었다. 물론 이전에 표절판으로 소개되었을 수 있으나, 자료를 찾기 어려우며, 19금이 붙었다고 해서 하드 비엘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철퇴를 생각하면 씬이 등장하는 작품들이 유통되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 한국에서 향유하던 작품은 거의 소프트 비엘이었고, 이들 중 미조구치의 진화형 작품들이 이미 존재했다. 즉 한국에서는 비엘 만화가 판타지 포르노에서 진화형으로 일선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진화형이라 볼 수 있는 소프트 비엘이 먼저 독자층을 형성했고 이후 하드 비엘이 자리를 잡으면서 다층적으로 동시에 공존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우선 1990년대에 한국에 소개된 일본 비엘 작품과 2000년대 초의 한국 비엘 작품 중 대표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비엘 비판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들을 분석한 후, 소프트 비엘의 재미와 의미에 대해 언급해 보려고 한다.

II. 1990년대와 2000년대 한국에서의 비엘

1. 1990년대에 소개된 대표적 일본 작품들

미나미 오자키의 『절애(絶愛)-1989(이하 절애)』 해적판이 언제 처음 출간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김효진은 1993년⁶⁾, 연구자가 중고서점에서 구입한 책은 1994년⁷⁾이니 대략 1990년대 상반기라고 보면 될 것이다. 1994년 해적판의 경우 작가는 미나미 오자키로 표기했지만 주인공은 샘석인과 최지수로 한국인인 것처럼 등장한다. 출판 당시엔 아무 표기도 없다가 ‘18세 미만 구독금지’, 이후 ‘19세 미만 구독금지’ 스티커가 계속 붙은 것을 보면 청소년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만화방에서 계속 읽히던 책임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1990-1991년 사이에 출간되었고 정식 번역본으로는 학산문화사에서 2001

6) 김효진 (2013, 275). 한국 동인문화와 야오이: 1990년대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30호.

7) 미나미 오자키 (1994). 곰코믹스 박성희는 1980년대 말에 출간되었다고 하나, 일본에서 출간된 연도(1990-1991)를 감안하면 오류로 보인다. 박성희 (2005, IV), ‘야오이(야오이)’ 세계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일어교육학과.

년에 5권으로 출간했다. 『절애』는 당시 많은 이들이 “야오이 입문의 계기로 삼는 작품”⁸⁾이지만,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아무 맥락 없다는 뜻을 지닌 야오이보다는 비엘 입문작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상반기, 『절애』는 제목 그대로 절절한 사랑으로, 사랑은 이성 사이에서 하는 게 당연하고 어딘가 동성애라는 게 있다고는 어렵듯이 알고 있었으나 한 번도 가까이에서 접하지 못한 이들에게 꽤 충격을 주었다.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무모하고 저돌적인 사랑의 묘사는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포르노 판타지라기보다는 동시대 사회에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 판타지에 가깝다. 세상 그 어떤 다른 존재로는 불가능한, 유일하게 상대방의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반력로서의 구원 서사이자, 절대적인 사랑 서사이다. 사랑 서사에서 장애물이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애뜻하고 간절해지는 필요불가결한 장치이다. 춘향과 이몽룡의 계급 차이, 동일계급 로미오와 줄리엣의 적대적 가문이 흔해졌다면, 타쿠토와 코지의 ‘동성’이란 장애물은 한 세대 이전의 상황에서, 엄청나게 두껍고 높은 벽이었을 뿐 아니라 희귀하기도 했다. 게다가 둘 다 잘생기고 매력적인 개성과 능력을 지닌 남성이다. 타쿠토는 해외에서 탐낼 정도의 축구선수이고 코지는 수많은 열성팬을 거느린 가수이다. 타쿠토를 향한 마음이 커져가는 코지의 서술 분량이 훨씬 많기에 감정이입 분량 역시 코지에게 더 많다. 너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으니 정신차리라는 친구의 말에 대한 그의 답변을 보자.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데 옳고 그르고가 어디 있어...!! 내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그건 올바른 사랑이고, 상대가 남자면 잘못이라는 거야? 세상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내 감정에 참견한 권리 없어...!⁹⁾

8) 차효라 (2003, 235). 여성이 선택한 장르, 야오이. 만화세계정복, 만화집단 두고보자. 재인용: 김효진 (2013, 각주 23).

9) 미나미 오자키 (2001, 32). 절애, 4권. 서울: 학산문화사.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면 전혀 보이지 않는 이성애 중심주의 사회의 규범에 대한 항거이고, 게이를 부정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내 절대적 사랑의 상대방이 동성일 뿐, 나는 원래 호모가 아니야, 호모를 싫어해’라는 발언은 1990년대 비엘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호모포비아적인 의견으로 분석할 수¹⁰⁾ 있다. 하지만 적어도 『절애』는 아니다. 오히려 놀라운 부분은 다음이다. 타쿠토를 좋아하는 여성이, 남자끼리라니 너무 이상하지 않냐며 비난하자, 이렇게 말한다.

나라면 이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개나 고양이나... 식물이나 기계라도...
틀림없이 찾아내 폭... 좋아하게 될 거야. 그 정도의 감정으로 내게서 이 사람을 빼앗지 말아줘.¹¹⁾

동성애를 초월해서, 동물이건 식물이건, 심지어 기계라도 괜찮다는 발언은 분명히 우리 사회의 이성애 규범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독자들이 타쿠토를 사랑하게 되는 코지에게 감정이입 하게끔 설치해둔 각종 장치에 빠져든다면 적어도 동성애 혐오는 하지 못할 것이고, 나아가 이성애 규범의 정당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될 수 있다. 코지의 공격적인 애정과 그를 회피하려는 타쿠토의 관계를 공격과 수비, 남성중심주의 사회에서의 지배적인 남성과 피지배적인 여성관계의 재현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코지를 쥐락펴락하는 타쿠토를 피지배자라고만 보기 어렵다. 성행위 측면에서 둘을 공수라고 단정하는 것도 독자의 관습적 해독일 수 있다. 둘의 씬은 작품의 끝에 은유적으로 제시될 뿐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¹²⁾. 박성희 역시 『절애』가

10) 하지만 김성진은 이 역시 호모포비아적인 의견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디나이얼로도 읽어낼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이다. 김성진 (2024. 6., 253-254). BL의 퀴어적 해석 : 게이 남성 독자들이 BL을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몇 가지 관점. 황해문화, 통권 제123호.

11) 미나미 오자키 (2001, 42-43). 절애, 5권. 서울: 학산문화사.

12) 1994년의 표절판은 은유적으로만 묘사되는데도 작품의 마지막 페이지들을 삭제하고 출간했다. 일종의 자기검열인데, 당시의 사회적 환경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그다지 자극적이지 않은 동성 간의 관계를 선보임으로써 여성들의 감춰왔던 성적 욕망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출구의 역할을 시작”¹³⁾한 것으로 본다. 자극적이지 않다는 해석은 단지 씬이 없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잘생기고 매력적인 두 남성의 사회적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는 사랑, 처음으로 접하게 된 새로운 세계의 강렬함은 충분히 자극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충족할 수 있는 여성의 숨겨진 성적 욕망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려진 두 매력적인 인물을 마음껏 쳐다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이 성적 욕망의 충족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타쿠토가 자신의 감정이 코지와는 다르지만 그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랑과 열마나 다른 것인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사랑이고, 그다음부터는 애정이나 우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본다면 사랑이 이성 사이 또는 동성 사이에 가능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랑의 더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제시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 요시다 이키미의 『바나나피쉬(1987-1994)』나 나츠미 이츠키의 『팔운성(1992-1997)』에서도 이런 점을 읽어낼 수 있다. 전자는 우리나라에 2000년, 후자는 1997년부터 정식으로 번역 소개되었지만, 『바나나피쉬』는 정식발매 이전에 이미 유통되고 있었으니 두 작품 모두 1990년대에 독자들을 만난 작품인 셈이다. 이 둘 모두 두 남성 주인공 사이의 삶을 통째로 바꿔버릴 만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이 관계를 무어라고 규정해야 하는지 단언하기 어렵다. 『뉴욕 뉴욕(1995-1998)』의 경우 조금 더 현실의 게이들의 삶에 가까워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소프트 비엘이다. 우리나라에 일본 비엘이 소개된 초기, 1990년대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대표적인 작품들은 모두 소프트 비엘이라고 볼 수 있다.

13) 박성희 (2005, 21).

2. 1990년대에서 2000년대의 한국 비엘 작품

1997년 청소년보호법의 시행을 떠올려보면, 주된 독자층이 10대와 20대인 순정만화계에서 판타지 포르노 같은 영역이 가능할 리 없다. 이렇게 본다면 소프트 비엘이 정착된 데에는 사회환경적인 측면이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1990년대 하반기까지도 활발하게 연령대별 잡지들이 창간되어 성인 대상 순정만화 잡지도 출간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성적 묘사의 수위가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설사 성애묘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이거나 은유적이지, 직접적인 묘사가 등장하는 작품들은 없었다. 많은 순정만화 작가들이 비엘적인 작품을 발표했고, 당연히 그 작품들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소프트 비엘이다. 황미나나 김혜린의 작품에서처럼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서브 인물이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로 묘사되는 경우가 드문 일은 아니었다. 비엘 장르는 연구자가 감성만화¹⁴⁾라고 호명하고 싶어 하는 순정만화 영역에 속하며, 당연히 순정만화의 문법을 활용하고 있다. 메인 플롯은 두 인물 사이에서 사랑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비엘은 이 틀하에 ‘동성’ 인물 사이의 사랑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왜 이 관계가 필요한지 설득하기 위한 ‘절대성’이 강조된 장르이다.

대표적인 한국 비엘 작품으로¹⁵⁾ 2000년에 상하 두 권으로 발간¹⁶⁾한 유시진의 『폐쇄자』를 보자. 유형으로 보면 『절애』와는 다르다. 『절애』가 픽션이라도 동시대가 배경이라면, 『폐쇄자』는 가상세계가 배경이기에 픽션성이 더

14) 연구자는 감성만화가 더 적절한 대체어라고 생각한다. 다음 논문 참조 한상정 (2016). 순정만화라는 유행-순정만화라는 장르의 역사와 감성만화의 정의. 대중서사연구, 22권 2호 대중서사학회.

15) 물론 이보다 박희정의 『마틴 앤 존』이 더 빨리 연재를 시작하긴 했으나, 단행본 1권 발간이 1999년인 데 반해 중간에 연재중단을 겪다 12권이라는 장편으로 2019년에야 완결되어 1990년대 하반기 작품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16) 잡지 <나안>에서 연재하던 것을 모아서 출간한 것으로 보이나, 단행본에 표기가 되지 않아 알기 어렵다. 발간일은 2권 모두 2000년 6월 10일인 것으로 보아 1998년에서 1999년 사이에 첫 연재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강하다. 그리고 한 여성과 두 남성이 등장한다. 일반 로맨스물이라면 한 여성을 둘러싼 두 남성의 경쟁일 수 있으나, 여기서 한 남성(쿤)을 둘러싼 한 여성(산카)과 다른 남성(히이사)이 등장한다. 심지어 산카와 쿤은 절대적 맹세를 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이이다. 문제는 히이사가 산카를 죽여버릴 만큼 쿤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세계를 지키거나(키피) 폐쇄시킴(클로저) 버릴 수 있는 막강한 양날의 검과 같은 권력을 계승한 쿤은, 세계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희로애락 그 모든 감정을 절제하도록 훈련받았다. 하지만 다른 세계에서 온 너무나 자유로운 산카와 사랑에 빠진다. 히이사는 키피라는 자리를 두고 어릴 때부터 경쟁하던 쿤을 계속 지켜보다가 사랑하게 된다. 산카의 세계가 산카를 죽였다고 오해하고 파괴해버린 쿤은 계속 자폭을 시도하고, 히이사는 그런 그를 계속 말려보지만 결국 실패한다. 쿤은 죽어가는 와중에도 세계를 지키기 위해 키피/클로저 권력을 히이사에게 넘기려고 하지만, 그가 없는 세계가 하등 의미 없는 히이사는 거부한다. 쿤이 죽자 그들의 세계는 모두 사라져버리고 암흑만이 남는다.

산카가 없었다면 쿤과 히이사의 관계는 『절애』의 타쿠토와 코지의 관계와 유사하다. 히이사와 코지는 상처받은 주인공을 정신적·물질적으로 뒷받침하고, 똑같은 밀도는 아닐지라도 신뢰와 애정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산카라는 여성이 존재함으로써 『절애』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쿤은 산카를 사랑했지만,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히이사와도 감정을 나눈다. 히이사의 강렬한 감정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서로가 잘 알고 이해하니 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모든 기억을 되찾은 죽음의 순간에 머리카락을 만지는 히이사의 손길과 목소리가 좋았다는, 사라져서 아쉽다는, 어쩌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여운을 남긴다. 어디부터 사랑이고 어디부터 아닌지도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다. 산카에 대한 쿤의 사랑과 히이사에 대한 쿤의 사랑 중 어떤 사랑이 더 사랑이라고 정의하기 어렵다. 비록 사랑하는 사이라도 두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강도로 똑같이 사랑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산카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갈 수는 없었다는 쿤의 고백도 눈여겨보아야 한

다. 자신을 무너트린 것이 산카의 죽음이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이 키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자괴감이어서 괴로웠다고 히이사에게는 고백했다.

1990년대 상반기에 『절애』가 한국에서 최초로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압박에 문제 제기를 했다면 『폐쇄자』는 1990년대 하반기에 이미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랑을 너무 단순하게 접근해왔던 것이 아닌가, 이성간 또는 동성 간의 사랑이나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과 자기 정체성 사이의 균형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같은 질문이다. 얼핏 보면 장르로서의 비엘이 가지는 절대적인 사랑 판타지에는 적합하지 않은 현실적 발언이나, 이런 작품들이 장르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이처럼 단순해 비엘은 현실적인 배경에서 비현실을, 비현실적인 배경에서 현실을 넘나들면서 사랑의, 또는 절대적인 사랑 판타지의 여러 측면을 보여주었다.

III. 비엘 비판에서 주목할 부분

김효진은 탈-비엘의 주장 유형을 세 가지, ‘게이 혐오, 공수관계를 통해 현실 남녀의 권력관계를 강화한다는 점, 구조적으로 여성캐릭터를 배제한다는 점¹⁷⁾’으로 구분하고,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이는 미조구치가 일본에서의 비엘이 2000년대 들어 진화한다고 방어하는 맥락과 동일하다. 김효진은 탈-비엘 측이 오히려 게이와 게이섹스를 혐오한다고 비판하며 그런 부분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이런 혐오적 발언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다. 즉, 비엘이 “현실의 남성 성소수자의 이미지와 사회적 압박을, 당사자가 아닌 여성의 쾌감을 위해 활용하는 콘텐츠¹⁸⁾”이며 “동성애 이미지를 소비하면서 실제 성소수자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는 상태로는 성소수자에 대한

17) 김효진 (2019, 197). 앞서 미조구치의 ‘진화형 비엘’과 맥락이 거의 유사하다.

18) 요리사안 (2017, 87). 후조시의 원죄 - 후조시는 왜 현실 호모에 대해 알아야 하는가. 메타후조 재인용: 김효진 (2019, 206). 페미니즘의 시대, 보이즈 러브의 의미를 다시 묻다: 인터넷의 ‘탈BL’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7호.

왜곡된 이미지만을 학습하게 되며, 이는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의 현실은 외면하면서 이들을 타자화한 이미지만을 포르노로 소비하는 호모포비아적 상황에 가담하는 것¹⁹⁾이라는, 정치적으로 옳지 않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는 게이 인권운동가 사토 마사키의 비판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 그는 야오이를 비판하며 ‘게이에 대한 성적 대상화, 외모지상주의, 게이의 현실에 대한 몰이해²⁰⁾’를 지적했는데, 비엘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 비판들을 성소수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 성소수자의 현실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외모지상주의 이렇게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는 오랫동안 여성을 동등한 인격을 지닌 개체로서 바라보지 않고 하등한 개체처럼 욕구충족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 여성의 이미지를 남성의 성적 흥분을 위한 도구로 소비해온 것에 대해 비판해왔다. 비엘이 과연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성소수자 동료 시민의 이미지를 이성애자 여성의 쾌감을 위한 도구로 소비하고’ 있는가. 물론 소프트 비엘은 직접적인 씬이나 포르노그래피적인 묘사가 없으므로 이런 비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긴 하다. 그럼에도 두 남성을 다룬다는 점에서, 두 남자의 절대적인 사랑을 보며 즐긴다는 점에서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

이 비판이 적절하려면 비엘의 두 남성 인물이 현실의 게이를 재현해야 한다. 한국에서 비엘 장르의 순정만화의 하위 영역이고, 달리 말하면 창작자와 독자군이 대부분 여성이라고 추정한다는 의미이다. 이들이 그려내고 읽어내는 인물들이 남성의 외향을 갖고 있다고 해서 현실세계의 남성일까. 현실에서 그런 남성은, 있으면 좋겠으나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여성의 취향과 여성의 욕구가 만들어낸 허구의 성, 남성처럼 보이나 실제 남성일 수 없는, 픽션적인 성을 지닌 종이 속의 존재일 뿐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들은 사실상 현실의 게이일 수 없다. 이런 작품을 읽고, 우리 사회에서의 실제적인 성차별, 관습적 사랑 구조, 강력한 양성중심 구조에 대해 약간이나마 문

19) 요리사안. 앞의 글.

20) 미조구치 아키코 (2015, 99-104).

제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면 결코 비엘을 여성을 배제하는 생산품이라거나 성소수자 동료 시민의 이미지를 포르노적으로 활용한다고 비판할 수 없다.

사실상 이 주장은 비엘이 구조적으로 여성캐릭터를 배제한다는 비판과도 이어진다. 『폐쇄자』는 산카가 등장하니 여성캐릭터를 배제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비판 방식에 따르면 그럴 수 없다. 그녀는 날개가 달린 다른 종족이니 인간 여성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의 관점에서 픽션을 판단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사실상 근본적인 질문은, 여성향 픽션에서 남성이 주인공인 것을 왜 비판해야 하는가이다. 현실의 생물학적 여성도 계급과 계층, 인종과 나이 등 다양한 사회적 격차 문제가 공존한다. 이 중에서 성차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픽션에서 남성이 주인공이라고 현실에서의 여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며, 주인공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여성에 대해 어떻게 발화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유의미한 여성 캐릭터의 부족은 여성향 장르에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 차별적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이는 영화나 드라마처럼 실제 배우들이 등장하는 픽션물에서 점점 더 브로맨스 코드가 많아짐에 따라 남성 배우들의 주인공 독점, 여성 배우들의 부재 등을 비판하는 시선들과 맞물려 있긴 하지만, 타 표현형식의 문제를 비엘 만화 장르의 문제로 동등하게 치환할 수 없다. 더군다나 비엘 장르를 키워온 현실 세계에서의 여성작가와 여성 독자의 역할을 감안하면 더욱이나 비엘이 여성캐릭터의 배제로 여성을 혐오한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심지어 실재하는 인물에 대한 묘사²¹⁾라도 완전한 픽션에 불과하다는 원칙에 대한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비엘의 등장인물의 성별은 문제를 제기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21) 아이들의 알페스(실존인물 간 연애를 픽션으로 묘사하는 모든 문화적 허용)에 대해 연혜원은 “대상이 되는 실존인물의 확실한 동의 없이 성적 대상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완전히 반박할 수는 없지만 알페스의 서사가 픽션이라는 사실이 팬덤 내에서 공공연히 합의를 이루고 있고, 그러기에 포르노그래피적인 것과 포르노그래피 산업과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연혜원 (2021, 14-15). 케이팝을 쿼어링하기, 쿼어들로지 - 전복과 교란, 욕망의 놀이. 파주: 오월의봄.

두 번째로, 비엘은 성소수자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일천한다. 그렇지 않다. 비엘 장르는 성소수자의 현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적인 작품이 아니기에 성소수자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성소수자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는 데는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텍스트의 직접적인 내용 측면이다. 『절애』처럼, 동성이 사랑한다고 하자마자 사방에서 몰려드는 다양한 발화들(불행해질 거다, 이상하다, 추잡하다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현실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모든 비엘에서 등장인물들이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때 이러한 변민들은 등장하기 마련이다. 비록 이것이 현실의 성소수자의 고민에 비하면 약하더라도 최소한의 정보는 준다.

두 번째는 간접적이지만 중요하다. 미조구치는 비엘을 읽는 즐거움을 ‘주체의 다중동일화’로 해석하는데, 흥미로운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여성 독자가 공, 수, 그리고 신적 입장이라는 세 입장을 오간다는 것, 남자가 자신처럼 여자가 되어 아름다운 남자에게 안기는 즐거움을, 때로는 남자가 되어 남자를 정복하는 즐거움을, 또는 “아름다운 남자들이 싸우고 상처입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²²⁾이다. 마치 여성인 것처럼 또는 남성인 것처럼, 또는 그 둘 다 아닌 것처럼, 또는 한꺼번에 양자 모두인 것처럼. 이런 독해 경험이 야말로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체계가 얼마나 관습적이고 폭력적인지 잘 드러내주는 지점이라고 본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현실에서 동료 성소수자들의 삶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보는, 결코 현실의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게이도 아닌, 이 두 아름다운 생명체는 이성애와 사랑에 대한 독점적 정의에서 벗어나게끔 독자들을 이끌 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엘은 ‘외모지상주의’라는 비판이다. 순정만화의 장르적 특성 중 하나는 일종의 유희주의이자 장식성²³⁾이다. 남성향 만화처럼 두터운 선

22) 미조구치 아키코 (2015, 80-81). 원래 번역가 카카누마 에이코의 발언을 재인용함.

23) 순정만화의 특성으로서의 장식성과 유희주의에 대해 다음의 논문 참조 한상정 (2007). ‘장식

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주요한 캐릭터들은 세심하게, 아름답고 멋지게 그려져야 한다. 순정만화의 영역 안에 있는 비엘 역시 오래된 전통이자 장르적 특성인 유태주의를 따르고 있다. 이런 특성 자체로 비판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캐릭터와 묘사의 유태주의적 특성이 외모지상주의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모지상주의는 외모가 최고이며, 외모가 추하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비엘 장르 등장인물의 외모가 현실의 게이들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외면으로 묘사된다는 것은 유태주의이지, 외모지상주의는 아니다.

IV. 소프트 비엘의 재미와 의미

비엘의 가장 큰 재미는 무엇보다도 각 등장인물의 매력, 그리고 그 둘이 어떻게 각종 장애와 방해물을 뚫고 결국은 상호사랑의 단계에 이르는가이다. 이는 순정만화의 오래된 공식이기도 하다. 순정만화에서의 이성애관계와는 달리 비엘에서는 멋지고 아름다운 두 남자가 무엇 때문에 어떤 험난한 과정을 거쳐 서로에게 절대적인 관계가 되어가는가에 집중한다. 물론 남자가 둘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진행과정에서 독자들을 끌어당겨야 한다. 이 지점에서 서사의 중요성이 등장한다. 아무리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꽃미남 둘을 설정하더라도 둘의 관계가 어떻게 그럴듯하게 형성되는지 독자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다. 현실에서는 존재하기 어렵고 그렇기에 판타지이지만, 독자에게는 이런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관계에 대한 내적 욕구가 강하게 존재한다. 오늘날 비엘이 향유자층을 확대해가는 기저에는 절대적인 신뢰관계에 대한, 무한히 끝없이 자신을 위해 희생해줄 수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욕구가 이전보다 더 강해졌기 때문일 수 있다. 삶을 지탱하기 위해 혼자 살 수밖에 없는 1인 가구가 늘어가고, 반려로서의 인간은 찾기 힘들고

상의 반복적 출현에 대한 소고: 순정만화와 타 장르(포스터, 일러스트, 서정화, 소조망가)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12호.

반려동물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현재, 픽션에서나 만날 수 있는 이런 절대적인 애정을 주는 존재와 그들의 사랑을 탐닉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사실 비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다중동일화’야말로,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김효진은 이를 “남성육체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통한, 상징적 변형과 지배의 ‘쾌락’”²⁴⁾이라고 지적하는데, ‘여성 독자가 공, 수, 그리고 신적 입장이라는 세 입장을 오간다는 것’을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떠나 다양한 성적체성에 대한 간접 경험의 즐거움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즉, 남성 우위의 양성구조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피지배적인 독자군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성을 떠나 여러 성을 떠돌아다니는 다성적 경험의 쾌감과 해방감이 비엘을 읽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는 점이다. 사실은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아직까지 제대로 연구해본 적이 없는 지점, 즉 비엘을 읽는 ‘상대적으로 피지배적인’ 남성 독자들, 또는 ‘성소수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로도 보인다. 순정만화 역시 의외로 순정만화의 특정 서사를 즐기는 여성 이외의 다른 성들이 있다고 추정하듯이, 비엘이 주는 이 쾌감과 해방감은 분명히 여성만이 아니라 다른 성들도 독자로 끌어들이 수 있다.

이런 경험의 지속적 반복은 엄정한 우리 사회의 젠더 구분 경계를 뛰어넘는 데 도움이 된다. 성이 양성인지 다성인지 아니면 훨씬 더 다채롭게 많은지, 사회적 구분의 엄격함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는 비록 여성이거나 남성이거나 또 다른 성일 수도 있지만, 마치 남성처럼 하지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남성들은 아닌 좀 다른 남성들로, 또는 게이처럼 하지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이와는 좀 다른 게이를 경험하는 것이다. 두 남자 주인공에게 특정한 성역할이 없고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보호해준다가 압도적으로 강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각자 다른 지점에서 강하거나 섬세하다면 비엘을 현실의 성권력 관계가 그대로 반영된 공수 구도의 재현물로 볼 수 없다. 당연히 “비엘은 절대로 공수 구분을 벗어날

24) 김효진 (2021, 147-148).

수 없다. 벗어났다면 그건 퀴어문학²⁵⁾이라는 주장도 오관이다. 적극적/소극적 또는 삽입하는 자/삽입당하는 자 같은 단순한 구도만으로 현실의 남성권력구도를 재현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비엘은 퀴어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미 비엘이 자리 잡기 시작한 초기에도 『뉴욕, 뉴욕』 같은 작품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작품들은 등장할 수 있다. 단, 비엘 장르가 퀴어물이 되어야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비엘이 가지는 재미 요소는 현실적 요소는 아니다. 비엘 장르가 퀴어적이 되기보다는 비엘의 재미를 즐기면서도 퀴어에 친밀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훨씬 유용하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지점이 있다. 설사 비엘이 하나의 장르물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만화 작품리는 점이다. 『절애』는 절대적인 사랑 판타지를 통해 양성중심 구조의 우리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이 절대적인 사랑 조차 서로의 강도나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폐쇄자』는 그에 더해 절대적인 사랑 판타지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희석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세계를 지키기 위해 한 사람(키피)에게 유지권/파괴권 같은 위험한 권력을 부여하고, 그 외의 모든 이가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모든 인간적 감정을 삭제하고 살아가라고 요청하는 세계가 존재할 가치가 있는 지도 묻는다. 달리 말하면, 사회 전체를 위해 특정 개인의 희생(들)을 마땅히 여기는 사회에 정당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비엘이 단지 사랑의 다양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작품으로서의 문제의식을 함께 던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엘이라는 장르도 얼마든지, 일반적인 작품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동시대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다. 물론 꼭 사회적인 시선을 지닌 작품만이 유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좋은 비엘 만화 작품은 당연히 좋은 만화 작품이다. 비엘 만화 역시 시각적 만족도에서 만화 서사로서의 탁월함까지, 그리고 던지는 메시지의 유효함까지 독자들에게 풍성하게 제공할 수 있다면 더 오래 언급될 수밖에 없다.

25) 김효진 (2019, 216). 김효진이 트위터에 유통되는 비엘 비평글을 인용하는데, 이를 재인용한 것임.

V. 나가며

우리나라에서 하드 비엘이 본격적으로 유통된 것은 2000년대 초, 일본 비엘 번역 전문 브랜드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로 보인다. 현대지능개발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순정만화를 다루다가 국내 순정만화가 위기에 빠지자 2000년대부터 일본 비엘을 수입하기²⁶⁾ 시작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의 철폐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18금, 19금이라는 빨간 딱지를 부착하고 만화방이나 도서대여점에서 아예 별개의 공간을 만들어서 배치해두면 벌금을 부과받을 만한 여건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루비코믹스’라는 브랜드를 런칭했고, 약 300권의 번역본 비엘을 출간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부터는 ‘뉴루비코믹스’ 브랜드를 시작했고, 2024년 5월 기준으로 약 3,000권²⁷⁾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비엘이 출판만화 영역에 머물렀을 무렵, 2001년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약 15년 정도를 루비코믹스의 일본 번역 비엘이 한국 비엘만화계를 꽤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볼 수 있다. 2001년부터 2024년 5월까지 23년간 약 3,300권을 출간했으니, 1년에 143권 정도, 1개월에 12권 정도를 발간한 셈이다. 오늘날 웹툰 플랫폼의 양적 공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전자책으로 함께 유통되는 것을 보면, 국산 비엘 웹툰과도 여전히 경쟁하는 셈이다. 일본 비엘의 ‘판타지 포르노’적 성격이 루비코믹스를 통해 전파되고, 오늘날 하드 비엘 웹툰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하드 비엘 시장의 경쟁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썸이 등장하는 하드 비엘이라고 모두 포르노그래피적인 것은 아니며, 또한 포르노그래피적이라고 해서 비판할 수는 없다. 썸이 서사 속에서 등장인물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매혹적인 장치가 될 때 그 묘사들은 분명히 의미가

26) 안예숙 (2008. 11.). 보이즈러브는 부끄러운 장르가 아니다 [인터뷰]. 뷰티풀 라이프 vol 4-1 별책부록 그루. 절대교감. 185-189. 1980년대에 대본소 만화를 시작할 때 출판사 이름이 현 때문고라서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함.

27) 권수는 루비코믹스, 뉴루비코믹스에 붙은 시리얼 넘버로 추정했음. 그러나 현대지능개발사로 검색하면 오늘날 기준으로 약 4,090권이 나오기에 아주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도 있다.

있다. 농염한 씬으로 유명한 저 『야화첩』²⁸⁾조차 서사가 마무리되어 갈수록 씬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작품에 정치적으로 올바르기를 요구하는 것도, 도덕적 사회적 잣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어떤 장르를 비난하려면 정치적으로 옳지 않다고 비난하기보다는, 재미도 의미도 없고 시간 때우기이며 두 번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치명적이다. 어떤 하드 비엘 작품들은 분명 코인을 위해 씬을 그려내는, 점점 더 재미없는 만화가 되어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씬이 없어도 독자들이 재미있어하는 흥미로운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소프트 비엘의 유리한 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씬의 묘사가 없다면 포르노그래피적 소비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위해 불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와야마 아미의 『가라오케 가자!』²⁹⁾나 『패밀리 레스토랑 가자』³⁰⁾, 지붕 작가가 피너튼에서 연재 중인 『원룸조교님』 같은 작품은 비엘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판타지성이 약해지고 오히려 일상성, 현실성이 증가한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이런 작품들은 향후 판타지성이 강한 비엘이 현실성이 강한 쿼어물과의 중간고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만든다. 최근 『시멘틱 에러』 드라마 역시 원작과는 달리 12세 관람가로 낮추면서 관람객들을 끌어모았고, 흥행이 되면서 원작 웹소설과 웹툰의 판매액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³¹⁾. 이 작품으로 처음 비엘을 접했다는 반응³²⁾까지 나온다. 비엘과 비엘 코드들이 일상에서 점점 더 확장된 이후, 현실의 성소수자에 대한 감성은 어떻게 변화해나갈까. 실제 인간이 등장하는 드라마와는 다른, 만화만이 그려낼 수 있는 비엘의 영역이 있을까. 이

28) 변덕. 레진코믹스 2019년부터 연재하며 전 세계 누적 조회수 4,500만 뷰를 돌파한 작품.

29) 和山やま (2020). *カラオケ行こ!* 현승희 번역 (2022). *가라오케 가자!* 파주: 문학동네. 2021년 일본만화대상 3위 수상작.

30) 和山やま (2023). *ファミレス行こ。* 현승희 번역 (2024). *패밀리 레스토랑 가자.* 파주: 문학동네. 2024년 일본만화대상 10위 수상작.

31) 박설이 (2022. 3. 11.). ‘시멘틱 에러’ BL드라마 한계 뛰어넘었다... ‘신드롬급 인기’. TV report, 출처: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213/0001209375>.

32) 박설이. 앞의 글.

런 의문들은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려고 한다.

【주제어】 비엘(Boy's Love : BL), 한국 비엘, 소프트 비엘, 하드 비엘,
다중동일화

[참고문헌]

- 김성진 (2024). BL의 퀴어적 해석: 게이 남성 독자들이 BL을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몇 가지 관점. *황해문화*, 통권 제123호. 246 - 256.
- 김효진 (2013). 한국 동인문화와 야오이: 1990년대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30호. 263-291.
- 김효진 (2019). 페미니즘의 시대, 보이즈 러브의 의미를 다시 묻다: 인터넷의 ‘탈BL’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화연구*, 47호. 197-227.
- 김효진 (2021). 당사자됨을 구성하기: BL, 환상, 욕망, 퀴어들로자-전복과 교란, 욕망의 놀이. *파주: 오월의봄*.
- 박설이 (2022. 3. 11.). ‘시맨틱 에러’ BL드라마 한계 뛰어넘었다... ‘신드롬급 인기’. TV report, 출처: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213/0001209375>.
- 박성희 (2005). ‘야오이(야오이)’ 세계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명대학교 일어교육학과.
- 안예숙 (2008. 11.). 보이즈러브는 부끄러운 장르가 아니다 [인터뷰]. *뷰티풀 라이프 vol 4-1 별책부록 그루. 절대교감*. 185-189.
- 연혜원 (2021). 케이팝을 퀴어링하기, 퀴어들로자-전복과 교란, 욕망의 놀이. *파주: 오월의봄*.
- 요리사안 (2017, 87). 후조시의 원죄 - 후조시는 왜 현실 호모에 대해 알아야 하는가. *메타후조*.재인용: 김효진 (2019, 206). 페미니즘의 시대, 보이즈 러브의 의미를 다시 묻다. 인터넷의 ‘탈BL’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화연구*, 47호. 197~227.
- 이유진 (2019. 5. 17.). 은밀하게 취향을 즐길 수 있는 모바일, 전자책 기술의 발전에 따라 2015년께 양지화한 ‘비엘 산업’. *한겨레신문*, 출처: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894266.html>.
- 한상정 (2007). ‘장식성’의 반복적 출현에 대한 소고: 순정만화와 타 장르(포스터, 일러스트, 서정화, 소조망가)를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12호. 45-56.
- 한상정 (2016). 순정만화라는 유명-순정만화라는 장르의 역사와 감성만화의 정의. *대중서사연구*, 22권 2호. 대중서사학회, 297-323.
- 溝口彰子 (2018). *BL進化論*. 김효진 번역 (2018). *BL 진화론*. 서울: 길찾기.
- 和山やま (2020). *カラオケ行こ!* 현승희 번역 (2022). *가라오케 가자!* *파주: 문학동네*.
- 和山やま (2023). *ファミレス行こ*. 현승희 번역 (2024). *패밀리 레스토랑 가자*. *파주: 문학동네*.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에서 비엘의 정착이 일본과는 달리 처음부터 소프트 비엘이었으며, 여성이나 게이 혐오가 없었고 이성애 규범에 문제를 제기하는 진화형 작품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후 비엘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들, 즉 성소수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 성소수자의 현실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외모지상주의라는 비판을 살펴보고 그 부적절성을 제시한다. 이후 소프트 비엘의 재미와 의미에 접근하는데, 비엘의 가장 큰 재미는 무엇보다도 각 등장인물의 매력과 그들의 관계이다. 각기 멋진 두 남성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험난한 과정을 거쳐 서로에게 절대적인 관계가 되어가는가에 집중한다. 즉 아무리 매력적인 꽃미남 둘을 설정하더라도 서사에서 풀어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비엘의 즐거움이라고 알려진 ‘다중동일화’를 새롭게 제시하는데 이 과정은 독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수행해야 할 사회적 성을 떠나 여러 성을 떠돌아다니는 다성적 경험의 쾌감과 해방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경험의 지속적 반복은 엄정하게 구분된 우리 사회의 젠더 구분의 경계를 뛰어넘는데, 성 구분이 양성인지 다성인지 아니면 훨씬 더 다채롭게 많은지, 사회적 구분의 엄격함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근 주목받는 소프트 비엘 작품들은 일상성과 현실성이 증가하여, 현실성이 강한 퀴어물과의 교량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Abstract]

The Attraction and Meaning of the Soft Boy's Love(BL) Comics Genre

Han, Sangjung (Incheon University)

This study begins by showing that, unlike in Japan, the establishment of the Boy's Love (BL) genre in Korea was a "soft" BL from the beginning: it was neither misogynistic nor homophobic but rather possessed a progressive character that challenged heterosexual norms. I will then examine the most common criticisms of BL and argue that they are inadequate. These criticisms usually mention this genre's sexual objectification of LGBT people, its lack of understanding of LGBT realities, and its superficiality. I then analyze the attraction for the soft BL genre. This is first and foremost about the attractiveness of the characters and their relationship. It usually focuses on what attracts each of these two men to each other, and how they go through the arduous process of becoming indispensable to each other.

In other words, no matter how good-looking a BL makes its main characters, the story cannot succeed if it does not integrate this fact into a narrative. I then propose that what is known as BL's pleasure, or "multi-identification," should be newly seen as providing the reader with the pleasure and liberating experience of wandering from one gender to another outside the gender that they have been socially assigned to perform. The repeated access to this experience could help us transcend the rigid boundaries of our society's gender binaries, to understand that gender can be bisexual, polyamorous, or much more, and how violent the imposition of social binaries can be. Some soft BL comics that have recently gained attention are increasingly realistic, so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serve as a bridge to LGBT comics that are more realistic.

[Keywords] Boy's Love (BL), Korean BL Soft BL, Hard BL, Multiple Identification

논문투고일: 2024년 07월 07일 / 논문심사일: 2024년 08월 11일 / 게재확정일: 2024년 08월 27일

[저자연락처] hsj870@inu.ac.kr